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8. 13.(목)

한 총리,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찾아 유해 재수습·피해자 지원 직접 점검

- “그간 정부 대응이 유가족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점 사죄” -
- 폭염 속 유해 재수습 현장 찾아 군·경찰·소방 등 참여인력 격려 -
- “독립적·공정한 사고조사, 조사 과정과 정보 투명하게 공유” -
- “피해자 지원과 희생자 추모 사업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펴볼 것” -

□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13일(목)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찾아 추모하고, 유해 재수습 현장과 유류품 보관소를 점검한 뒤, 유가족들과 만나 그간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정부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 유가족 50여명,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 12·29여객기참사지원·추모위원회 민간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국토부 2차관,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장, 군·경찰·소방 등 유해 재수습 관계자 등 참석

- 이번 방문은 한 총리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무총리로 일하게 된다면 유가족을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듣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 한 총리는 가장 먼저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 이어 한 총리는 유해 재수습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무더위 속에서 수색에 참여하고 있는 군·경찰·소방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한 총리는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 드린다”며, “희생자분들의 유해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폭염 속에서 작업하는 수색 인력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도 각별히 챙겨줄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유해 재수습에는 군·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이 일평균 200~300여명 참여하고 있으며, 8월 12일 기준 유해추정 1,620점과 유류품 851점 등이 수습됐다.
 - 한 총리는 이어 유류품 보관소를 찾아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유류품의 보관·관리 상태와 유가족 인도 절차 등을 점검했다.
- 현장점검을 마친 한 총리는 유가족 5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사고 조사와 피해자 지원, 희생자 추모 등에 대한 유가족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직접 들었다.
- 먼저 한 총리는 사고 조사와 관련해 독립성·공정성에 기반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신속한 조사, 투명한 정보공개를 강조했다.
- 한 총리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된 취지를 살려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사고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특히, “새로이 임명된 항철위 위원장(최기영)을 중심으로, 조사 과정과 결과를 유가족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유하고 주요 진행상황을 충실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한 총리는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와 관련해서도 유가족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 한 총리는 12·29여객기참사지원·추모위원회 등에 유가족과 정례적으로 만나 건의사항을 듣고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 아울러 간담회장에서 국무총리 비서실장에게도 유가족의 목소리가 총리실에 직접 전달되고, 관련사항을 살필 수 있도록 별도의 상시 소통채널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 끝으로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의 대응이 유가족 여러분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면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기억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부족한 부분들을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 대 섭 (044-200-2073)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사무관 선우세원 (044-200-2115)